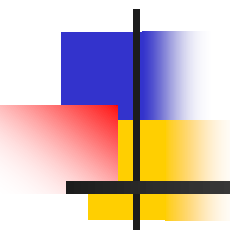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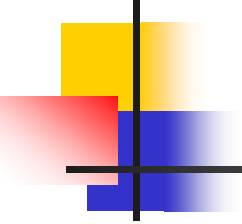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 의 다이내믹 두 번째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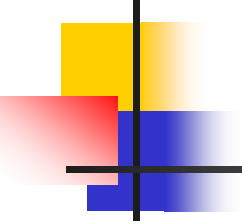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박 동 섭

littleegan@gmail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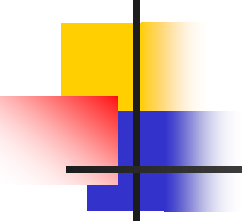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사회 없이 이 개인의 마음 혹은 욕구는 성립하지 않는다. 밖에 나가 있는 가족에게 집에 올 때 간장을 하나 사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싶은 그 욕구는 리얼타임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 사회 기술적 환경 안에서 밖에 일어날 수 없다.
 - 물론 휴대폰과 배배 같은 이동통신수단이 없었던 시대에도 저잣거리에서 나간 가족에게 느닷없이 간장을 사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.
 - 그러나 그러한 연락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욕구는 헛된 바람으로서 곧 시들해져 사라질 것이다.
 - 편지와 같은 통신망이 불안정한 시대와 세계에 있으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의 의미조차 달라짐에 틀림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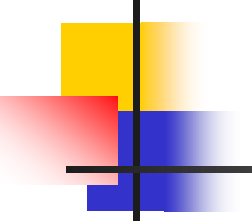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지금 당신이 만약 이 글을 컴퓨터상에서 읽고 있다면 클릭 하나로 이 화면을 닫을 수도 있고 프린터 아웃 해서 읽는다면 종이를 덮을 수도 있다.
 -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다.
 - 이처럼 행위의 욕구는 원칙적으로 자유다.
 -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리얼리티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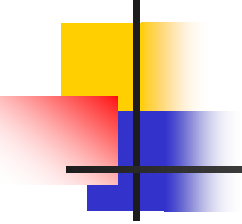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그런데 픽션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.
 -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이라도 소설과 영화의 줄거리를 바꿀 수 없다.
 - 한편 리얼리티는 자유이다. 그 ‘느낌’이 리얼리티의 일부이다.
 - 단 이 자유의사에는 원류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동시에 제약하는 뭔가가 있다.
 - 그것이 인공물이다.
 - 정말로 자유일까 라고 천천히 음미해보면 거기에는 법과 제도를 포함한 인공물의 제약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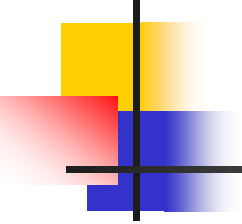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이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영역에 속한다.
 - 그러나 욕구는 개인 정신의 움직임(작동)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.
 - 왜냐하면 인공물은 인간 정신의 불가분의 일부이면서 인간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물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확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.
 - ‘뭔가를 메모해 두자’라고 생각하는 욕구는 우리 정신의 단독 작용이 아니다.
 - 문자를 알고 글자를 쓸 수 있고, 펜을 갖고 노트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욕구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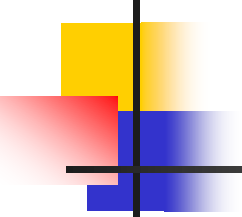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우리는 자유의지에 터한 행위주체성(Agency)을 갖고 리얼리티를 만난다.
 - 그러나 그 자유로움은 인공물의 적용범위의 제약을 받는다.
 - 후쿠오카의 야나가가와에서 온천을 마치고 맛있게 먹은 장어덮밥을 잘 하는 레스토랑의 이름과 주소를 메모하고 싶어도 일본어를 읽고 쓸 줄 모르면 메모할 수 없다.
 - 문자를 그림처럼 스케치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은 이른바 '메모'라고 부를 수 없는 노릇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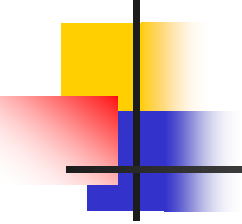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사가 행위 하려고 하는 대상의 다발이다.
 - 그런데 그것은 인공물의 기능의 제약을 받는다.
 -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밖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.
 - 행위의 욕구와 몽상은 전혀 다르다.
 - 이러한 사실을 역사상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예증해 보기로 하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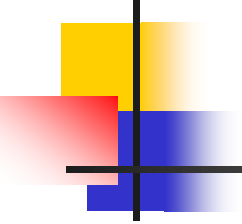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예를 들면 최초의 통조림 따개의 개발은 통조림의 개발보다 반세기나 늦었다.
 - 사상 최초의 양철통에 의한 보존식료품, 즉 통조림은 1772년 네덜란드군의 이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(Robertson, 2006).
 - 그 후에 현재의 통조림으로 연결되는 원리가 개발되었는데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200여년전 1804년의 일이었다.
 - 개발자는 보존이 용이한 휴대식품을 찾고 있었던 나폴레옹으로부터 막대한 상금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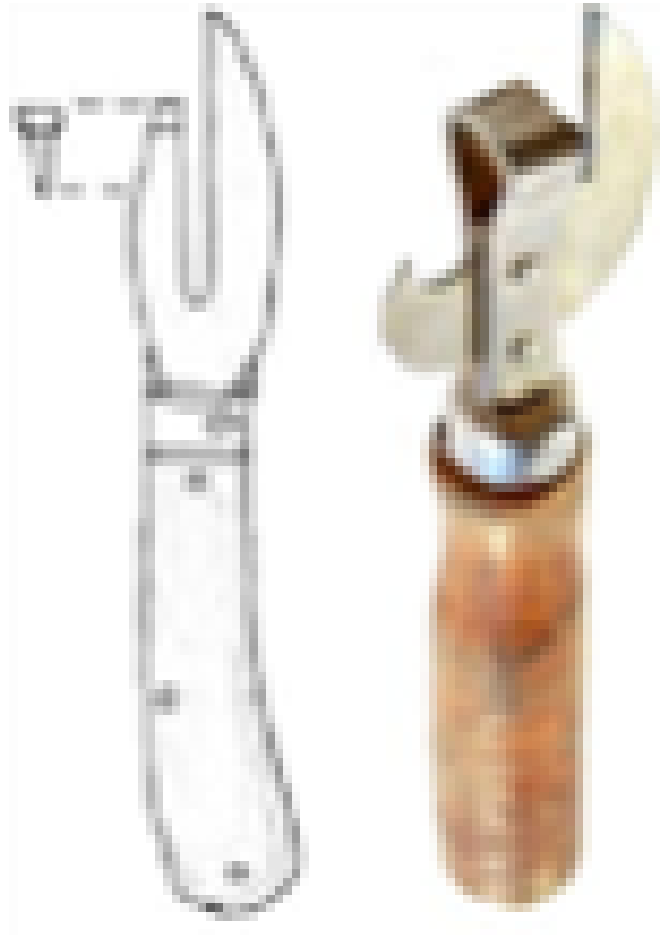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그 후 1810년 영국에서 지금과 똑같은 양철통조림이 개발되고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단은 군용식료품으로서 보급되고 그 후 생활 속에서 활용되게 되었다.
 - 그런데 이 무렵의 통조림은 너무나 단단해서 내용물의 중량보다 더 무거웠을 정도였다.
 - 또 통조림을 열 때에는 높은 기량이 요구되었다.
 - 당시의 통조림의 라벨에는 ‘강철제의 끝과 쇠망치’로 안쪽을 잘라내라’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. 군인들은 총검과 나이프 혹은 심지어는 총으로 쏘아서 통조림을 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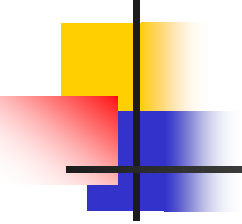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즉 당시의 통조림을 둘러싼 리얼리티는 이러한 것이었다.
 - 사람들은 “하고 싶어지는 것 밖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”라는 원칙에 따라 이 위험하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50년간 계속 해왔다.
 -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1855년에 처음으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통조림따개가 영국에서 특허 등록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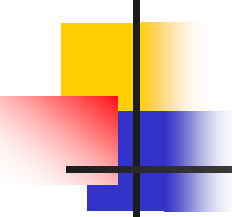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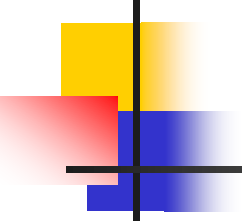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이 통조림 따개에 좀 뒤쳐져서 1858년에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통조림 따개가 특허 등록되었다.
 - 이러한 통조림 따개의 개발은 보다 연한 재료로 만든 통조림의 개발과 연동하였다.
 - 이 통조림 따개는 미국 남북전쟁(1861-1865) 때의 합중국군에 정식 채용되었는데 돌출된 낫 모양의 칼이 위험해서 가정용으로는 보급되지 않았다.
 - 가정용 통조림 따개의 등장은 1865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었다.
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통조림이 발명되고 50년 동안 통조림은 통조림 따개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되었다.
 - 즉 리얼리티는 인공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.
 - 1855년 보다 이전에 사람들은 통조림을 앞에 두고 강철제의 끌과 쇠파지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손이 많이 가는 일을 떠올렸을 것임에 틀림없다.
 - 손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.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. 그럼에도 50년 동안이나 철제의 끌과 쇠파지로 통조림을 열어왔던 것이다.

도구(Tools) 와 욕구(Needs)

- 
- 통조림 자체는 식료를 둘러싼 리얼리티를 바꾸었다. 식료를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날 것인 채로 장기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. 단 통조림이라는 패키지는 결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.
 - “그런 손이 많이 가는 일을 그래도 반세기나 계속해 왔구나” 라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리얼리티도 미래로부터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
 -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‘베베’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. 당시에는 최신의 편리함도 현재 뒤돌아보면 그런 불편한 것을 사용하고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.